

「臺」樣式的 歷史的 發達過程에 關한 研究 (I) *

— 新增東國輿地勝覽 分析을 통한 臺의 概念 分析 —

安啓福

(효성여자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1. 서론

東西洋에 있어서 돌(石, 岩)을 대상으로하여 造景에 활용하는 방법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東洋에서는 돌이 상징적으로 활용되어 관심의 대상이 된적이 많은데 비해 西洋에서는 물리적인 구성요소로만 활용되어 조경시설물의 일부 구성물로 활용된 점이 큰 차이점이다. 西洋에서는 돌을 단지 材料로 밖에는 간주하지 않았으며 돌에 內在하고 있는 미를 활용하지 않았다. 같은 동양에서도 韓中日이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中國에서는 天竺石이나 太湖石을 이용하여 거대한 산을 모방하였고, 日本에서는 돌과 모래만을 이용하여 바다와 섬을 縮景한 平庭古山水 양식에서와 같이 축경을 위한 상징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韓國에서는 三國時代부터 있어온 石蓮池나, 高麗時代 관석을 사용한 石假山, 朝鮮時代의 怪石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韓國造景史의 내용은 宮苑, 개인주택정원, 書院, 別墅, 樓亭臺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宮

闕, 마을, 개인주택정원, 書院, 別墅, 樓, 亭 등은 이미 상당부분 연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臺에 관한 研究는 國內外的으로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다. 또한 韓國傳統庭園의 특징은 흔히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양식이라고 하는데 臺는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樣式으로 판단 될 뿐만아니라 宮苑, 別墅, 樓亭, 八景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韓國傳統庭園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主題라고 思料된다.

지금까지의 研究중에서 安啓福 金永彬(1986)은 文獻調査를 통해 別墅에도 濯纓臺, 澄心臺, 觀魚臺, 洗心臺, 逍遙臺, 水雲臺, 釣臺, 仙臺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 安啓福(1990)은 樓亭에서 八景의 對象地를 지정할 때 臺가 상당수 지정됨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造景史를 研究하는 가운데 臺가 일부 언급되었을 뿐 아직 臺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臺란 許慎(98)의 說文解字에 四方을 볼 수 있는 높은 곳¹⁾이라고 되어 있고, 釋名에는 臺는 보는 곳으로서 臺 위에서는 觀望하는 곳을 臺라고

*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하였으나, 올라가 사방을 볼 수가 없는 獨出하게 높은 곳도 臺²⁾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樂嘉藻(1933)는 흙을 쌓아 이루는 건축물을 臺라고 하여 건축물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또한 臺, 樓, 閣, 亭을 모두 遊觀하는 건축물로 보고 있다. 高麗末의 李奎報(1251)는 높은 板으로 築한 것을 臺³⁾라고 하여 李奎報는 '築臺'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韓再洙(1985)는 李奎報의 概念(土高曰臺)을 인용하면서도 臺란 높은 築臺위에 놓여진 건축물로 보고 있다. 計成(1634)의 園治⁴⁾에서는 園林에 있는 臺는 돌로 높이 쌓아 윗부분을 평탄하게 한 것이 있고(平臺), 혹은 나무를 받쳐 세운 높은 구조물(架臺) 위에 판자를 깔되 집(屋)이 없는 것도 있고, 혹은 樓閣 앞에 一步 나오게 하여 (밖의 경관을 볼때) 높고 시원하게 하도록 해 놓은 것도 臺라고 하였다. 計成은 자연에 있는 臺에 관한 언급은 없으나 平臺, 架臺, 건축물에 덧붙은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같은 여러 사람의 臺에 관한 정의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臺란 자연에 있는 바위(說文解字, 釋名), 建築物의 한가지 類型(樂嘉藻), 그리고 平臺나 築臺와 같이 인공적으로 쌓은 臺(李奎報)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갖는 臺가 한국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發達되어 왔는지는 앞으로 계속 연구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논문에서는 "臺"고 하는 樣式的 歷史的 發達 過程에 關한 研究를 하기 위한 前段階로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나는 臺에 關한 여러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알려졌은 한국에서의 臺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 더 연구되어져야만 할 研究內容과 研究方向을 제시하는 것이 本 研究의 目的이다.

1) 觀四方而高者也

2) 觀 觀也 於上觀望也 觀不必四方 其四方獨出而高者 則謂之臺

3) 崇板築謂之臺

4) 園林之臺 或輟石而高上平者 或木架高而版無屋者 或樓閣前出一步而敞者 俱爲臺

2. 研究方法

臺에 關한 概念을 正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方法이 있었지만 本 研究에서는 古文獻을 통해 把握하고자 한다. 分析資料는 우선 時代的으로 보아서 朝鮮初期의 문헌이 高麗 以前 時代와 朝鮮 後期를 연결 시킨다는 의미가 있기에 朝鮮初期의 文獻 가운데에서 選定하기로 하였다. 朝鮮時代 初期에 刊行된 여러 地理誌중에서 宮選地理誌이면서 地理的 範圍가 전국적이고 무엇보다도 臺에 關連된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분석자료로 삼았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110個所의 臺가 出現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하여 道別 分布의 特徵, 臺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出現하고 있는 編目 分析을 통한 여타 양식과의 關連性 調査, 臺의 形態에 關한 特徵 分類, 臺에서 일어났던 行態 分析, 그리고 立地類型을 分類함으로써 臺에 關한 基本的인 樣式을 究明하여 概念을 設定하고자 한다.

3. 臺의 樣式 分析

3-1. 道別 分布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新羅의 우륵, 善德女王, 崔致遠, 百濟의 義慈王, 高麗의 李仁老 등에 關連된 臺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朝鮮時代 以前에 關한 기록은 많지 않아 道別 分布적 特徵은 알 수 없으나 1530년대의 朝鮮시대 道別 分布는 표 1. 과 같다.

安啓福(1990)에 의하면 朝鮮時代 全期間을 통하여 樓亭이 많았던 道는 慶尙道와 全羅道 이었다. 그러나 표 1.의 道別 分布를 보면 慶尙道와 全羅道는 樓亭뿐만이 아니라 臺도 많이 分布하고 있는 道로 나타났다. 그러나 樓亭의 숫자가 많지 않은 江原道에 臺가 많은 특이한 현상이다. 이러한 원인은 江陵大都護府의 鏡浦臺, 許李臺, 杆城郡의 茂松臺, 三陟都護府의 凌波臺, 襄陽都護府의 秘仙臺와 같이 海岸에 있는 것이 많고 또 淮陽都護府의 金剛臺, 白雲臺와 같이 금강산, 설악산등 山岳景觀이 뛰어난 道가 많았던 까닭으로

판단된다.

표 1.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黃海道, 咸鏡道, 平安道는 臺와 樓亭이 모두 적게 분포하는 도로 나타났다. 朝鮮初期의 분포상의 특징은 위와 같이 나타났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지나고 다시 문화가 융성했던 17-18세기의 자료가 분석되어야만 좀 더 확실한 분포적 특징과 원인에 대해서 밝힐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臺와 樓亭의 總計를 비교해 볼때 일단 臺의 숫자가 樓亭에 비해 1/2-1/3정도 밖에 안되는 숫자이지만 110개소의 臺가 出現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臺라는 어떤 양식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臺의 道別分布

| 地域 \ 個所 | 臺* (%) | 樓* (%) | 亭* (%) |
|---------|------------|------------|------------|
| 京畿道** | 8 (7.3) | 21 (6.6) | 43 (18.1) |
| 忠清道 | 15 (13.6) | 33 (10.4) | 30 (12.7) |
| 慶尙道 | 20 (18.2) | 108 (34.1) | 56 (23.6) |
| 全羅道*** | 20 (18.2) | 71 (22.4) | 44 (18.5) |
| 黃海道 | 5 (4.5) | 19 (6.0) | 12 (5.0) |
| 江原道 | 23 (20.9) | 30 (9.5) | 21 (8.9) |
| 咸鏡道 | 7 (6.4) | 16 (5.0) | 13 (5.5) |
| 平安道 | 12 (10.9) | 19 (6.0) | 18 (7.6) |
| 計 | 110 (100) | 317 (100) | 237 (100) |

*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 나타난 자료로 문장내용 가운데 현존하는 것도 포함.

** 京都, 漢城府, 開城府가 포함된 숫자.

*** 和順縣의 圭峯寺 十二臺와 光山縣의 圭峯寺에 나오는 十臺는 동일지역 중복 기록된 것으로 보임. 臺의 數는 臺의 명칭이 모두 정확하게 나와 있는 光山縣의 記錄을 채택한 숫자.

3-2. 他樣式과의 關聯性

우리나라의 地理誌는 三國史記와 高麗史에 수록된 것도 있지만 이것은 모두 주로 郡縣의 소속과 변천에 관해 간략하게 기록된 것이다. 世宗때부터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地理誌를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존하는 것으로 전국적이고 詩文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제일 오래된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은 郡縣別로 차이는 있으나 대개 建置沿革,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城郭, 烽燧, 宮室, 樓亭, 學校, 驛院, 佛宇, 祠廟, 橋梁, 部坊, 古跡, 人物, 題詠 등 20여개의 編目으로 나누어 記述되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臺는 樓亭처럼 독립적인 編目으로 분류되어 기술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盧思愼의 서문을 보면 編目에 대한 분류 기준과 이유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 樓臺는 遊觀하는 곳이고 使臣을 접대하는 곳⁵⁾임으로 새로운 編目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각 郡縣의 編目名에는 '樓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서도 서문에서는 '樓臺'라고 쓴 것은, 잘못 쓴 것이 아니라 '臺'라고하는 글자가 갖고 있는 개념이 '樓亭'이라고 하는 글자가 갖고 있는 개념과 같은 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樓, 亭, 臺를 이용하는 행태적인 측면과 형태적인(건축적인 측면 포함) 측면에서 분석해 본다면 개념상 동일점과 상이점이 뚜렷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樓와 亭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安啓福(1990)에서 밝혀진 바가 있고 樓亭과 臺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밝힐 예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110個所인데 표 2.에 나타난 臺의 總數가 116個所나 되는 이유는 慶尙道 慶州府의 瞻星臺(古跡, 題詠), 昌原都護府의 月影臺(山川, 古跡), 江原道 江陵府의 鏡浦臺(樓亭, 題詠), 平海郡의 臨의臺(樓亭, 題詠), 黃海道 鳳山郡의 鳳凰臺(山川, 題詠), 平安道 平壤府의 鳳凰臺(祠廟, 古跡)가 2개 編目에 중복되어 출현하기 때문이다.

표 2.는 臺가 다른 樣式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 出現 編目별로 조사한 것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20여 編目 가운데 臺가 13편목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 臺가 출현할 수 없는 郡名, 姓氏, 土產, 部坊, 人物 등의 編目を 제외시켜 보면 臺가 상당히 폭넓게 여러분야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樓臺所以時遊觀而待使臣

표 2. 臺의 出現編目

| 編目 | 個所(%) | 事例 |
|-----|----------|-----------|
| 宮闕* | 3(2.6) | 京都 簡儀臺 |
| 壇廟 | 1(0.9) | 京都 觀耕臺 |
| 橋梁 | 1(0.9) | 漢城府 仰釜日晷臺 |
| 古跡 | 25(21.5) | 慶州 瞻星臺 |
| 樓亭 | 29(25.0) | 平壤府 乙密臺 |
| 形勝 | 3(2.8) | 江華府 朝天臺 |
| 佛宇 | 19(16.3) | 晉州牧 坐高臺 |
| 學校 | 1(0.9) | 沃川郡 西臺 |
| 山川 | 25(21.5) | 報恩郡 文藏臺 |
| 題詠 | 6(5.1) | 江陵府 鏡浦臺 |
| 祠廟 | 1(0.9) | 平壤府 鳳凰臺 |
| 城郭 | 1(0.9) | 會寧府 烟臺 |
| 驛院 | 1(0.9) | 開城府 臺 |
| 計 | 116(100) | |

*) 宮室 포함

각 編目에 나타난 臺의 出現빈도를 보면 樓亭조에 25%, 山川과 古跡조에 각각 23.3%로 높게 나타났다. 樓亭은 前述한 바와같이 臺와 개념상 비슷한 점(건축물의 일종, 樂嘉藻)이 있기에 제일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山川조에도 出現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山川조에 기록된 臺는 자연의 경승지에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事例는 山川조와 佛宇조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忠淸道 報恩郡의 文藏臺는 山川조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위의 형태적 특징과 입지특성에 관해 기록된 것을 보면 경승지에 특징있는 형태를 갖춘 臺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臺는 許慎의 說文解字에 나타난 臺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古跡조에 出現 빈도가 높다는 것은 朝鮮時代 이전에도 臺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그 다음 出現빈도를 보이는 것이 佛宇로 10.3%이다. 慶尙道 晉州牧의 佛宇조에 있는 坐高臺는 사찰 주변 지역 가운데 암반의 모양이 절벽 같으면서도 위가 평평하여 사람이 앉을 수 있거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곳을 臺라고 하였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靈神寺는 지리산에 있는데 절 뒤 봉우리에는 깎은듯한 돌이 서 있고 그 꼭대기에는 평상처럼 생긴 작은 돌을 받들고 있어 坐高

臺라고 부른다.⁶⁾

그 밖에 檀廟, 橋梁, 學校, 祠廟, 城郭 등에서도 1회씩 出現하고 있는데 李奎報의 정의처럼 모두 인위적으로 쌓은 것들에 관한 내용이었다. 京都 壇廟조에 나오는 觀耕臺는 成宗 7年(1476)에 先農壇⁷⁾의 남쪽 10보에 쌓은 것이다. 漢城府 橋梁조에 나오는 仰釜日晷臺는 종로에 있었던 惠政橋 동쪽에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는 1899년 파고다 공원으로 옮겨진 해시계다(鄭瞳昨, 1992). 沃川郡의 鄉校에 西臺가 있었고 會寧都護府의 行城은 禿山의 烟臺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朝鮮時代 초기에 이미 臺의 3가지 類型 즉 自然에 있는 바위, 建築物의 한가지 類型, 그리고 平臺나 築臺와 같이 인공적으로 쌓은 臺가 모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3. 形態的 特徵 分類

古文獻에 나타나는 글을 가지고 실제적인 특징을 분류한다는 것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외로 새로운 관점과 개념적 특징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표 3.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밑바탕으로 추후 현지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群集分析(cluster analysis)을 하여 類型分類를 실시할 예정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臺의 형태적 특징이 나타나 있는 곳은 모두 39個所이었다. 그런데 臺에 관하여 기록된 내용들은 대부분 한가지 특징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이를 각 특징별로 조사하여 만든 표가 표 3.이다. 가장 형태적으로 복합적인 특징

6) 靈神寺在智異山 寺之後峯有石削立 其頂戴小石如床 號坐高臺

7) 東郊 普院東洞에 있는데 神農氏 后稷氏를 제사드린다. 神農氏 神座는 북쪽에 있어 남향이며 后稷氏 神座는 동쪽에 있어 서향이다. 매해 경칩 후 좋은 亥日을 택해 제사를 거행한다.

표 3. 形態의 特徵 分類^{*)}

| 特 徵 | 出現回數(%) | 代表的 事例 |
|-----|----------|-------------------------|
| 盤 石 | 19(30.2) | 江陵大都護府 許李臺：海濱有巖 平廣可坐百餘人 |
| 峰 狀 | 17(27.0) | 長湍都護府 正瓶臺：寺東有一獨峯高挿霄 |
| 絕 壁 | 16(25.4) | 甲山都護府 奉天臺：有大石 四面如削高三十餘丈 |
| 奇 岩 | 6(9.5) | 夫餘縣 釣龍臺：一怪石跨于江渚 |
| 層 岩 | 4(6.3) | 鐵原都護府 層 臺：層臺可坐十許人 |
| 其 他 | 1(1.6) | 慶州府 瞻星臺：鍊石築臺 上方下圓高十九尺 |
| 計 | 63(100) | |

*) 臺 39個所 자료를 분석하여 특징 63가지를 분류한 것임.

나타난 자료의 個所당 1.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대부분의 자료는 자연속에 있는 窟에 관한 기록들 이었음.

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忠淸道 報恩縣의 文藏臺⁸⁾인데, 그 기록을 보면 칩칩이 쌓인 돌(層石)은 하늘이 만든 것인데 높게 공중에 솟아 있어(峯狀) 그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絕壁) 그 넓이는 3천명이 앉을만 하다(盤石)라고 하여 4가지의 중복된 形態의 特徵을 보이고 있다. 또 全州府의 萬景臺에 관한 기록⁹⁾을 보면 돌로 된 봉우리(峰狀)가 기이하고 수려한 형상(奇岩)을 하고 있는데 마치 구름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層岩)과 같은데 그 위에 수십명이 앉을만하다(盤石)라고 기록되어 있어 역시 4가지의 중복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을 통하여 臺의 형태적 특징은 상단부가 평평하여 여러명이 앉을 수 있겠다고한 盤石型이 30.2%로 나타났다. 솟은 봉우리 형상을 하고 있어 하늘을 찌를듯하다고 한 峰狀型은 27%로 나타났다. 甲山의 奉天臺는 사면이 절벽처럼 생긴 특이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絕壁型은 25.4%로 나타났다. 이 세가지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82.6%이므로 臺의 형태적 특징은 盤石型, 峰狀型, 絕壁型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밖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문헌상에는 怪石, 奇岩, 瑞石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기이하게 생긴 돌(奇岩型)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층을 이루고 있는 돌(層岩型)이 6.3%로 나타났다.

3-4. 行態의 特徵

臺의 形態의 特徵과 함께 臺의 行態의 特徵은 臺의 본질적인 성격과 특징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要素들이다. 臺의 전체적인 행태 특징을 볼 때 놀이, 觀賞, 휴식을 하였던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놀이, 觀望, 휴식이란 곧 公園(park)의 본질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行態이다. 따라서 臺는 곧 한국에서 현대적 公園의 옛 형태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에서 公園의 옛 형태가 樓亭이라고만 생각될지도 모르겠으나 安啓福(1990)에 의하면, 樓亭에는 遊賞 宴會 뿐만 아니라 政治 行事的인 일도 樓亭에서 일어났으므로 한국에서의 公園의 옛 형태는 樓亭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표 4.의 결과를 두고 볼때, 놀이 觀望 휴식등의 행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樓亭 보다는 臺가 더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送別, 祭祀와 같이 현대적인 公園 성격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행태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古文獻에서 놀이는 遊 혹은 遊賞으로 표현되고 있다. 泡母臺는 옛날 薔薇라는 선녀가 있었는데 항상 泡母臺 위에서 놀아서 향기가 골짜기에 가득하였다고 하는 곳이고, 高麗時代 李仁老가 遊했던 景釀臺, 百濟의 王이 이 바위에서 놀던 자

8) 疊石天成巖屋窺空 其高不如其幾丈 其廣可坐三千人

9) 石峯奇秀狀 如層雲 其上可坐數十人

표 4. 臺에 나타난 行態의 特徵

| 類 型 | | 事 例 | |
|-----|--|----------------------------------|--|
| 놀이 | 遊 | ▷ 忠清 忠州 泡母臺：昔有仙女名薔薇 自號泡母 常遊其上香滿 | |
| | | ▷ 慶尚 漆原 景釀臺：高麗李仁老嘗遊于此 | |
| | | ▷ 忠清 夫餘 自溫臺：百濟王遊于此岩 | |
| | | ▷ 慶尚 慶州 九聖臺：新羅時九聖所遊之處 | |
| | | ▷ 江原 江陵 許李臺：許琮李陸俱以使命來 遊于此因名焉 | |
| | | ▷ 全羅 全州 黃鶴臺：傳黃鶴所遊處 | |
| | 遊宴 | ▷ 忠清 恩津 皇華臺：百濟義慈王 遊宴其上 | |
| | | ▷ 慶尚 東萊 海雲臺：新羅崔致遠 嘗築臺 遊賞遺跡尚存 | |
| | 遊賞 | ▷ 慶尚 梁山 臨鏡臺：崔致遠遊賞之地 | |
| | | ▷ 全羅 全州 黃華臺：每春秋登臨禊飲 | |
| 관망 | 望 | ▷ 江原 高城 佛頂臺：登佛頂臺遙望 | |
| | | ▷ 慶尚 東萊 海雲臺：南望對馬島甚近 | |
| | | ▷ 慶尚 慶州 瞻星臺：圭測影觀日月 登臺望雲占星 | |
| | 遊觀 | ▷ 慶尚 寧海 觀魚臺：臨東海石 岩下遊觀魚可數 | |
| | | ▷ 江原 翁谷 侍中臺：我世祖朝 巡察使韓明滄 登覽于此… | |
| | | ▷ 慶尚 慶州 瞻星臺：通其中 人由中而上下以候天文 | |
| 候相 | ▷ 全羅 和順 隱身臺：世傳 道詵坐此臺 相松廣山勢而創寺焉 | | |
| | ▷ 江原 三陟 召公臺：昔有一監司憩此臺. 盖昔黃翼成駐節之也… … 公所憩之地累石爲臺 …… | | |
| 휴식 | 憩 | ▷ 忠清 沃川 西臺：樓臺缺焉 無以暢湮鬱 迎清曠窘 于縉署者矣 | |
| | | ▷ 全羅 長興 歡喜臺：登陟者 困於危險憩乎此則 歡喜也 | |
| | | ▷ 咸鏡 安邊 元師臺：昔知兵馬使 遊憩此峯爲名 | |
| | 徘徊 | ▷ 京畿 江華 朝天臺：帝時升神馭徘徊 | |
| 기타 | 彈 | ▷ 忠清 忠州 彈琴臺：于勒彈琴之處 | |
| | | ▷ 忠清 永同 落花臺：稽州時送別之地 | |
| | 送別 | ▷ 開城 臺：送賓迎客之地也 | |
| | | ▷ 平安 嘉山 曉星臺：俗云古祭星之地 | |
| | 祭 | ▷ 慶尚 慶州 利見臺：神文王從之葬後 追慕築臺 | |
| | | ▷ 平安 通川 七星臺：七星臺上起傑閣 | |
| 起閣 | ▷ 江原 高城 尼臺：問佛所在 今之尼遊岩 或云尼臺是也 | | |

연히 따뜻해졌다는 自溫臺, 新羅 때 九聖이 遊하던 곳인 金鰲山의 九聖臺, 許琮과 李陸이 命을 띄고와서 遊해서 이름이 붙여진 許李臺 등은 모두 臺에서 놀이(遊) 했던 곳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이다. 또한 百濟 義慈王이 宴會를 열고 遊하던 皇華臺, 崔致遠이 臺를 쌓고 遊賞 했던 海雲臺와 臨鏡臺, 그리고 民들이 春秋로 올라가 제사 술을 마신 黃華臺가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臺란 三國, 高麗時代

를 거쳐 朝鮮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사람들이 遊(놀이)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행태가 가능했던 要因은 臺의 형태분석에서 나온 것처럼 臺가 평평한 盤石型이 많은 까닭에 그 위에서 놀이(遊)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망에 관계되는 행태는 문헌상에서 望(바라봄), 觀(봄), 覽(두루살펴봄), 候(상황을 살펴봄), 相(살펴 봄) 등의 한자로 표현되고 있다. 江原道

高城郡의 佛頂臺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十二瀑布가 보이며, 海雲臺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對馬島가 매우 가깝게 보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瞻星臺는 臺이지만 특이한 형태로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 사람들이 상하로 오르내리며 천문을 관측한 곳이다. 李穡은 寧海都護府에 있는 觀魚臺는 東海에 臨해 있는 바위인데 바위 아래에서 노는 물고기를 셀 수 있어서 이름 지어진 곳이라고 하였다. 侍中臺는 韓明澮가 이 臺에 올라 두루 살펴 보던중 右議政으로 임명한다는 왕명을 받은 곳이라 전해 지는 곳이다. 또 道誦은 隱身臺에 앉아 松廣山의 산세를 살펴 본 다음 圭峯寺를 창건 했다. 이와같이 臺에서 일어난 또 다른 형태의 행태적 특징은 먼 곳을 보거나(遙望) 살필 수 있다는 것(相)과 가까이 있는 흥미로운 요소들을 볼 수 있다(觀)는 것이다. 이와같은 행태가 가능했던 要因은 臺의 형태분석에서 나온 것처럼 臺가 絕壁型이 많은 까닭에 그 위에서 조망, 관망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휴식(憩)은 沃川郡의 學校조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람이 살다가 때로는 마음을 풀어 줄 곳이 필요하게 된다. 沃川郡의 西臺는 書院 부근에 있던 臺이지만 루대가 없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줄 곳이 없다고 하여 루대의 필요성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다. 江原道 三陟都護府의 菴公臺는 옛날 監司가 쉬던 곳, 또는 黃喜가 이곳 마을을 다스릴 때 이곳을 방문하여 쉬던 곳을 백성들이 그를 기려 菴公臺라 이름 짓고 그 뜻을 기렸던 곳이며, 元師臺는 옛날 知兵馬使가 이 봉우리에서 놓고 쉬었던 곳이라 臺의 이름도 그렇게 지어진 곳이다. 歡喜臺는 산을 오르는 사람이 험한 길에 지친 몸을 臺에서 쉬게 될 때의 시원함과 탁트인 기분을 나타내는 기록이다. 臺에서는 주로 놀이, 관망, 휴식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외에도 우륵이 거문고를 타던 彈琴臺, 기생이 어떤 남자와 헤어지는 것이 서러워 떨어져 죽었다던 落花臺, 별(星)에게 제사 지냈던 曉星臺, 건물(閣)을 지었다는 七星臺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開城府 上驛院조 天壽院 李芮의 글(1476)에는 高麗 500년 迎賓送客하던 이곳

이 80여년이나 지났으나 府의 사람들이 옛일에 따라 西峯에 땅을 고르고 臺를 만들어 큰 손님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와서 보내고 맞이한다.¹⁰⁾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도 있었다.

3-5. 立地 類型 分類

臺의 立地는 人文環境的인 측면과 自然環境的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人文環境的인 측면은 臺의 出現 編目 표 2.에서와 같이 宮闕, 樓亭, 佛宇, 學校, 祠廟, 城郭 등과 관련성이 있다. 이곳의 대개 臺는 築臺, 平臺의 형태로 위에 건물이 놓여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佛宇조에 나타나는 臺는 대개 수려한 景觀에 있는 絕壁 및 盤石型의 바위 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分析 項目에서는 人文環境的인 측면 보다는 自然環境的인 측면에서 臺가 자연의 어떠한 곳에 위치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分析하고자 한다. 이러한 研究結果는 추후 실시될 현지조사시 주요 점검사항이 될 예정이다.

표 5.의 臺의 立地 類型 分類表의 작성은 代表的 事例에 原文을 기재한 것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만든 표이다. 문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표 5.는 試案的인 意味를 갖는 표이기 때문에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으며, 또 추후 현지답사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尙次분석을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먼저 밝힌다.

臺의 立地 特性은 山頂부터 海濱까지 15개 정도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보면 接地型의 臺와 接水型의 臺, 그리고 混合型의 臺로 나눌 수가 있다. 臺의 立地가 接地型이란 接水型에 反對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용어인데, 臺가 산의 정상부(山頂), 산록이나 산등성이(岡), 산의 위(山上), 봉우리 위(峯上), 고개 위(峴上), 絕壁 위에 立地하는 臺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山頂과 峰上은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질 수 있

10) 謂天壽門是 高麗五百年送賓迎客之地也……府之人猶踵故事就 西峯除地爲臺 有大賓客則 必於此而送迎焉

표 5. 臺의 立地 類型 分類表

| 類 型 | | 代 表 的 事 例 | |
|-------------|-------|---|---|
| 接 地 型 | 山 | 山 頂 | 平安 平壤 乙密臺：錦繡山頂平坦敞豁 號乙密臺又稱四虛亭 |
| | | 山 麓 | 全羅 全州 萬景臺：在高德山北麓 |
| | | | 全羅 昌平 龍潭臺：… 山麓有奇岩 … |
| | 山 上 | 江原 淮陽 放光臺：寺後岡曰放光臺 | |
| | 峯 上 | 全羅 扶安 望海臺：在邊山 黃海 海州 夷齊臺：… 首陽山上有夷齊臺 | |
| | 峴 上 | 江原 三陟 召公臺：在瓦峴上 | |
| | 絕 壁 上 | 慶尚 梁山 臨鏡臺：在黃山驛絕壁上 | |
| 接 水 型 | 跨 水 | 忠清 夫餘 釣龍臺：一怪石跨于江渚 | |
| | | 忠清 夫餘 自溫臺：… 有怪石跨于水渚 | |
| | 回 抱 | 全羅 全州 黃鶴臺：在府南五里 石峯直立 大川回抱 | |
| | 水 中 | 溪 中 | 慶尚 咸陽 大孤臺：在瀋溪中 慶尚 咸陽 小孤臺：在潘溪中 |
| | | 江 中 | 京畿 江華 朝天臺：江心有石曰朝天臺 |
| | | 澤 中 | 咸鏡 安邊 元師臺：在鶴浦縣 海邊有大澤 澤中有小峯 |
| | 海 | 海 岸 | 江原 三陟 凌波臺：在府東十里海岸 …… 其岸上可坐數十人 全羅 沃溝 紫遷臺：在西海岸地勢平衍 |
| | | 海 峯 | 江原 杆城 茂松臺：明波驛南 有峯聳立海濱 … 其上多松樹 |
| | | 海 邊 | 慶尚 昌原 月影臺：在會原縣西海邊 |
| | | 海 濱 | 江原 江陵 許李臺：在府南二十五里 海濱有巖平廣 |
| 臨 海 | | 咸鏡 鏡城 元師臺：在府南八里 前臨大海 | |
| 混合型 | 灘 과 潭 | 慶尚 咸陽 瑜珈臺：… 瑜珈臺下有水潛灘 上即龍遊潭 | |
| | 峯 과 岩 | 黃海 新溪 懸鍾臺：鶴巢峯 … 昔有白鶴其頂因名焉 上有懸鍾臺 臺下有看月岩 | |
| | 複 合 | 川과 岸, 海와 岸, 海와 峯 | |

음으로 이러한 것들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재조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臺의 立地가 接水型이란 臺가 물의 樣態에 따라 接하고 있는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臺가 물에 걸치고 있거나(跨水), 물이 臺를 휘감고 있거나(回抱), 혹은 계류 강 못(潭)의 가운데 있거나, 바다에 있는 것들을 接水型的 臺로 분류하였다. 混合型이란 接地型과 接水型的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강의 절벽(川岸), 바다의 절벽(海岸), 바다에 있는 봉우리(海峯)등을 이 型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混合型에는 慶尚道 咸陽郡의 瑜珈臺처럼 여울물(灘)과 못(潭)이 함께 있는 곳에 위치한 특별한 臺도 있고, 黃海道

新溪縣의 懸鍾臺처럼 봉우리 위에 臺가 있고 아래에는 看月岩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기록된 것도 있었다.

安啓福(1991)에 의하면 樓亭의 입지 가운데 특히 특별한 경우는 두 강이 서로 만나 합쳐져서 흐르는 곳(三江合流地)에 입지한 것으로, 이 입지는 세 강물의 축을 따라 상이한 경관이 펼쳐지는 곳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臺의 입지가 물에 휘감기고 있거나 물 속에 입지(水中)하거나 봉우리 위에 있는 것 등이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4. 結果

本 研究는 臺에 關한 歷史的 發達 過程에 關한

연구를 하기 위한 前段階로서 朝鮮時代의 대표적 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나는 臺에 관한 內容들을 分析하여,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알려져 온 韓國에서의 臺에 대한 樣式的 脈絡을 究明하고 추후 연구되어야 할 研究內容과 研究方向을 제시하는 것이 本 研究의 目的이었다.

이를 위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出現하는 110個 所의 臺를 研究資料로 삼아 道別分布, 他樣式과의 關聯性, 形態의 特徵, 行態의 特徵, 그리고 立地類型을 分析하였다.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臺의 定義를 통해서 볼 때 臺란 자연에 있는 바위(說文解字), 건축물의 한가지 유형(樂嘉藻), 그리고 平臺나 築臺와 같이 인공적으로 쌓은 臺(李奎報)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2. 臺는 江原道와 慶尙道, 全羅道에 많이 분포하는 반면에 黃海道, 咸鏡道, 平安道는 적게 분포하는 道로 나타났다.

3.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臺는 樓亭처럼 독립적인 編目으로 분류되어 기술되지 못하였으나 20여 編目 가운데 臺가 13編目に 걸쳐 나타나 상당히 폭넓은 관련성을 갖는 양식임을 알 수 있었다.

각 編目に 나타난 臺의 出現빈도를 보면 樓亭조에 25%, 山川과 古跡조에 각각 21.5%로 높게 나타났다. 臺는 건축물의 한 유형으로서 樓亭과 개념상 유사점이 있기에 제일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山川조에 出現빈도가 높은 것은 臺가 역시 자연에 있는 바위인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그 밖의 편목에 나타나는 臺는 인위적으로 쌓아서 만든 臺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朝鮮時代 초기에 이미 臺의 3가지 類型이 모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臺의 형태적 특징은 상단부가 평평한 盤石型이 30.2%, 솟은 봉우리 형상을 하고 있는 峰狀型이 27%, 절벽처럼 되어 있는 絕壁型 25.4%로 이 세 유형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이하게 생긴 奇岩型이 9.5%로 나타났고 층을 이루고 있는 層岩型이 6.3%로 나타났다.

5. 臺의 形態의 特徵과 行態의 特徵은 臺의 本질적인 성격과 특징을 規定지워주는 要素들이다. 臺의 行태적인 특징을 볼 때 놀이, 觀賞, 휴식을 하였던 곳으로 나타나 公園(park)의 本질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악기 연주, 송별, 제사, 建築등의 行태도 일부 나타났다.

6. 臺는 15개의 立地特性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보면 接地型, 接水型, 그리고 混合型的 臺로 나눌 수가 있다. 接地型이란 接水型에 反對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용어로 山頂, 山麓, 산등성이(岡), 山上, 峯上, 峴上, 絕壁 위에 立地하는 臺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接水型이란 臺가 물의 樣態에 따라 接하고 있는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跨水, 回抱, 水中, 海邊에 있는 것들이다. 混合型이란 接地型과 接水型的 立地특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7. 本 연구를 수행한 결과 추후 연구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1) 本 研究의 地理的 分布는 1530년대의 자료이므로 좀 더 정확한 分布決定因子에 대해서는 그 以前 時代의 資料와 그 以後 刊行된 朝鮮時代의 古文獻 資料를 分析하는 研究가 필요할 것이다.

2) 形態的, 行態的, 立地的 特性을 갖는 臺에 대해 全國的인 標本, 實測調査를 實施하여 實際的으로 究明하는 일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樓, 亭, 臺의 樣式上 차이점에 대해 일부 밝혀졌으나 추후 연구에서 확실한 차이점이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4) 韓國의 臺에 관한 特性은 中日의 比較 研究를 통해 확실히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計成, 1634, 「園冶」(計無否, 1990, 「園冶」, 도서출판 조경, p. 43.) 김성우, 안대희, 원야(3), 환경 & 조경 35, p. 129.
2. 盧思慎, 1530, 「新增東國輿地勝覽」(韓國學文獻研究所, 1983, 全國地理志② 亞細亞文化社)
3. 樂嘉藻, 1933, 「中國建築史」(金永彬 譯, 1987, 中國庭園論, 新興印刷所, pp. 215-216.)
4. 安啓福, 金永彬, 1986, 「古文獻分析による韓國における別墅の概念に關する研究」, 「造園雜誌」, 49 (4).
5. 安啓福, 1990, 「樓閣 및 亭子樣式을 통한 韓國傳統庭園의 特性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 80.
6. 安啓福, 1991, 「韓國의 樓亭에 現われる 景觀處理技法에 關する 研究」, 「造園雜誌」 55(1), p. 24.
7. 鄭瞳昨, 1992, 「東洋造景文化史」, 全南大學校 出版部, pp. 451-452.
8. 李奎報, 1251, 「東國李相國集」(民族文化推進會, 1978, 國譯東國李相國集 III, p. 82.)
9. 韓再洙, 1985, 「別墅瀟灑園에 表象된 自然現象의 建築 美學的 體系에 關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誌 29(125), p. 19.
10. 許 慎, 98, 「說文解字」(黎明文化事業公司, 1967, 說文解字註, 梅川印刷有限公司).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Pattern of 『Dae』 in Korea (I)

—Review of the Sinjungdonggukyojisungram —

Ahn, Gye Bog

(Hyos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The 『Dae』 is a place where a man could commune with nature.

Our ancestors, who had very interested in natural landscape, and were named to the typical rock in the nature, which they called "Dae".

The results of a analyzed the old literature(1530 : early stage of Choson Danasty) are as follows.

1. The distrblution of Dae is differ from provinces.
Gangwon-do, Kyongsang-do, Cholla-do had many of the Daes.
2. The characteristics of form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 1) A type of huge flat rock, which able to sit 5-6 persons(30.2%)
 - 2) A type of mountain peak, which unable to use but seems to use images(27%)
 - 3) A type of cliff(25.4%)
 - 4) A type of fantastic rock(9.5%)
 - 5) A type of stratified rock(6.3%)
3.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Dae were summarized watching a scenery and strolling(遊), enjoying acenery, and relaxation.
4. The site locations of Dae are various such as, hill top, on cliffs, on the mountain, around river, river side cliff or grand rocks, and so forths.